



2단원 -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1.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신전 건축에 비교하여 설명한다. 신전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초석을 놓고 흙을 파서 차곡 차곡 재료를 쌓아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 신전을 이루는 부분들이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완성된 신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신전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즉 여기서 신전은 행복을 의미하며 신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은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사회적 지위, 자연환경 등을 의미한다. 이는 곧 행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행복은 아님을 의미한다.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에서 제비가 물어다 준 씨앗은 행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행복에 따르면 흥부의 행복은 씨앗 그 자체가 행복일 수 없다. 흥부가 베풀 착한 행실과 덕스러운 면모가 제비와 씨앗을 불러온 것이며 이는 덕의 실천을 강조한 행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현대 사회인에게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첫 번째는 행복의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는 특정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럽고 즐거운 행복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예컨대 음악인은 타고난 예술적 기질을 발휘하여 자신의 활동 그 자체에 집중하는 활동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인 행복임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돈과 명예, 재산 등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의 즐거움을 쫓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고 나누는 덕을 강조한다. 이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이러한 외적인 좋음에 몰두하지 않고 타인과 나누며 배려함으로써 얻는

것을 의미한다.

2. 인간에게 행복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 및 목표이자 가치 그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10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행복 추구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는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며 행복의 추구를 강조했다.

3. 헬퍼스하이와 사회적 공헌

러니스 하이(Runners' High)'는 달릴 때 얻는 쾌락과 도취감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자 아놀드 J 맨델은 1979년 발표한 정신과학 논문 ‘세컨드 윈드(Second Wind)’에서 이 개념을 처음 언급했다. 모르핀이나 헤로인을 투약했을 때 나타나는 행복감 및 의식 상태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후 연구에는 마리화나를 피울 때의 쾌감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연구도 나올 만큼 그 효과가 입증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등장과 함께 정신의학에서는 헬퍼스 하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개한다. 헬퍼스 하이는 남을 도울 때 느끼는 최고조의 기분을 뜻한다.

헬퍼스 하이는 미국의 내과 의사 앨런 록스가 ‘선행의 치유력(2001)’에서 처음 언급했는데, 타인을 도우면 정서적 포만감을 얻는 실험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도 내려가 진통 효과를 내는 엔도르핀이 3

배 이상이 분비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는 ‘테레사 효과’도 빠질 수 없다. 테레사 효과는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를 그린 책이나 영화를 보니 사람들의 면역물질이 약 50% 이상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결국 사회적으로 국가나 기업이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자주 쓰이기도 한다. 예컨대 자연재해도 인한 수해 복구 현장에 기부하거나, 그 밖의 다양한 사회적 공헌은 우리 사회를 보다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

국회미래연구원은 2023년 한국인의 행복 조사 주요 결과 및 최근 4년간 동향을 발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민의 행복 수준을 면밀히 파악한 후 행복 증진을 위한 한국인의 행복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약 1만 6천여 가구가 함께했다. 이는 국민의 행복 수준을 본격적으로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UN 세계 행복보고서¹⁾ 제안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하락세를 타던 행복 수준이 23년도에 들어서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22년의 추세를 보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은 행복 수준의 하락 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며 행복에 대한 불평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적 특징들(고도의 경쟁 사회, 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족의 해체와 세대 차이, 이혼향도 현상으로 인한 지역사회 붕괴) 등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입법 및 정책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5. 아담스미스의 행복

아담스미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간 사회가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었다. 이에 경제가 발전하면 범죄가 줄어들면서 사회 질서가 개선된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인간은 체면을 생각할 수 있고 남을 배풀 줄 알고 법을 지킬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아담스미스의 행복은 경제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재산이 늘어날수록 행복도 늘어날까? 에 대해 아담스미스는 ‘지혜로운’ 사람의 행복이란 재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는 아담스미스의 행복관을 통해 사상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아 스미스는 “건강하고, 빛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사람의 행복에는 무엇이 더해져야 할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며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추가되는 어떠한 행복도 남아도는 여분의 것이 되어버린다“고 대답했다. 즉 건강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빛을 지지 않는 정도의 재산을 추가하는 것이 행복 증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 김광연, 2019,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과 외부적 좋음 - 한국 사회에서 행복의 기준과 덕의 실천
- 김승욱, 2023, 애덤 스미스 사상 체계의 구조 및 함의, 공공선택학회
- 유남식, 2015, 우리나라의 행복의 지수가 낮은 원인과 대안에 대한 연구

<인터넷 기사>

- 전아름, 2024, 베이비뉴스

1) 2023년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150여 개국 중 57위